

그칠 줄 모르는 '삼국지' 열풍

학생·아동용까지 30여종...90년대 문화적 편중을 반증하기도

임순만

국민일보 문화부 차장

'삼국지' 열풍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83년 작가 이문열씨가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펴낸 뒤, 10권짜리 《삼국지》(민음사)를 내놓음으로써 다시 불붙은 삼국지 열풍은 소설뿐 아니라 만화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으로 확산돼 90년대 최대의 문화산업 흥행소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얼마전 작가 김홍신씨가 10권짜리 《삼국지》(대산)를 내놓았고, 옥중에 있는 황석영씨도 삼국지 번역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삼국지는 대략 30여종. 이중 아동용 삼국지만 해도 10여종에 이른다.

손꼽을 만한 만화로는 고우영씨가 제작한 5권짜리와 일본만화를 번역한 60권짜리가 있다. 만화방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만화일 뿐 아니라 삼국지를 읽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구입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다양하게 시도되는 '삼국지 문화산업'

비디오 삼국지는 미국·일본·중국이 공동 제작, 95년 출시됐다. 20권짜리와 42권짜리 두가지가 있는데, 케이블 TV인 HBS에서 방영된 데 이어 요즘에는 MBC TV에서 방영되고 있다. 오전 11시에 방영됨에도 중국 대륙의 광활한 영상과 호쾌한 드라마성 때문에 시청률이 10%를 웃돌고 있다. 컴퓨터게임용 삼국지는 <삼국지 5>까지 출시돼 있고 <공명전> 등 10여종이 있다. <천지창조>와 함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삼국지 문화산업은 CD롬, 카세트 테이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대중적인 인기를 차지한 것은 신문학기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한문으로 된 원본이 수입돼 읽혀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전으로 전해 듣는데 그쳤지만, 신문학 이후 수많은 국역본이 나와 대중들이 삼국지의 진수를 맛보게 됐다.

60년대에도 삼국지 국역이 한차례 전성(?)을 치른 바 있다. 58년 김동리·황순원·허윤석 공역 《완역 삼국지》(박영사) 출간을 시작으로 당시 여러 문필가들이 삼국지 번역에 뛰어들었다. 60년대 초반에 출간된 손

꼽을 만한 삼국지로는 이성학 역 《삼국지 연의》(선진문화사), 최영해 역 《완역삼국지》(정음사), 김동성 역 《삼국지》(을유문화사), 방기환 역 《삼국지》(삼문사), 박종화 역 《월탄 삼국지》(어문각), 김광주 역 《삼국지》(삼중당) 등이 있다. 70년대에는 정비석이 쉽게 풀어쓴 《삼국지》(고려원)를 냈다.

이중 가장 많이 읽힌 것은 《월탄 삼국지》. 한실(漢室)에 대한 충성과 유비·관우·장비의 결의를 중시하며 제갈공명의 지략을 유교중심적 세계관에서 펼침으로써 당대 독자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월탄이 가진 국한문혼용체의 고풍스런 문장과 역사해석력은 삼국지 읽는 맛을 한껏 높였다. 영웅재사들이 한세상 어우러지는 근원을 바라보는데 있어 월탄의 삼국지보다 앞선 책은 드물 듯하다.

월탄의 판매량을 월등하게 넘어선 이문열의 《삼국지》는 80년대 후반 출판시장에 나돌던 여러 종류의 삼국지를 평정, 해마다 1백만부 가량 팔려나가고 있다. 한 출판물의 베스트셀러 생명은 길어야 2년이 고작인 점으로 볼 때, 10여년이 지나도록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출판사상 전무후무한 것이다. 현재까지 7백만부 가량이 팔렸다.

이문열의 《삼국지》는 일반 인기출판물의 추세대로 초기에는 찾는 사람이 많았으나 2-3년이 지나자 판매부수가 크게 하강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94년 서울대 이공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최지훈군이 인터뷰에서 "이문열의 《삼국지》를 여러차례 읽은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현재 논술의 필독서처럼 일컬어지고 있는 이씨의 《삼국지》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상급반 어린이들로부터도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씨의 《삼국지》는 대만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모종강본(毛宗崗本)>을 저본으로 삼아, 1천만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삼국지 최고의 평역자 요시가와 에이지(吉川英治·일본)의 삼국지를 참고로 변형, 재구성한 것이다. 현대소설적 감각으로 소화한 데다 역자의 평설이 돋보이며, 요시가와 에이지의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조조를 패륜아적 간신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병술·통치·문재(文才)·역사해석력 등을 겸비한

'삼국지' 열풍이 90년대 최대 문화산업 흥행소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삼국지만 해도 대략 30여종에 이른다. 수많은 동서양의 고전 중 유독 삼국지에만 부는 열풍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중, 일방통행의 문화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내 서점가에 나온 삼국지는 30여종에 이른다.

다재다능한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체가 현대적이면서도 이씨 특유의 의고체 문장이 도처에서 감칠맛을 주며 리듬감이 있다.

김홍신의 《삼국지》는 청나라 모성산·모종강 부자가 엮은 《삼국지통속연의》 개작편을 저본으로 삼아 평역한 것. 김씨 특유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날카로움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대중적 인기

삼국지가 이처럼 시대마다 유명작가들에 의해 번역돼 독자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삼국지가 가진 대중적인 재미 때문이다. 생동감 있는 영웅들이 무수하게 출몰하면서 소설 전편을 수놓는 가운데 권모술수와 변화무쌍한 전투장면이 어우러짐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책을 잡았다 하면 끝내지 않고는 못배기게 하는 강점이 있다. 어린이들이 삼국지에 빠져드는 것도 다채로운 인물들의 각기 다른 분명한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예로부터 "삼국지를 세 번 이상 읽지 않은 젊은이와는 벗하지 말며 세 번 이상 읽은 노인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니와, 작가들 사이에는 "삼국지 번역을 마치면 소설 구성을 마스터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인물들의 성격이 분명하고 그들의 무용(武

勇)과 지모가 무궁무진하며 이야기 전개와 완급이 절묘하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삼국지를 꿰뚫게 되면 이야기의 구성이 마스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지가 이같은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열기는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 많은 동서양의 고전 중 유독 삼국지에만 열풍이 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문화적 편중, 혹은 일방통행의 문화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전이 '고정'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베스트셀러로 뛰어오르는 데에는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전술의 개념 아래서 음모성으로 계속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며, 주체적·개성적인 사고에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기계적인 채점의 틀을 정해 기계적으로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학입시 논술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삼국지》는 시대를 뛰어넘어 조용히 읽혀져야 한다. 그것이 일대 센세이션으로 읽혀질 때 사회는 온통 요물단지들과 협잡꾼과 기인들로 넘쳐날 것이다. ❖